

제 1 교시

국어 영역

[1 ~ 3]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동영상 보여준 후) 여러분도 이 학생처럼 스마트폰을 수시로 만지작거리거나 스마트폰 없이 5분을 못 버티나요? 만약 그렇다면 ‘노모포비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모포비아란 ‘No mobile-phone phobia’의 줄임말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는 증상입니다. 일종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인데요, 요즘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그에 따른 문제점과 예방법 등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 도표를 보여주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의존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30.2%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공부할 때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여가 시간을 보낼 때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이나 게임 등을 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의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신체적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장시간의 스마트폰 사용은 시력 저하, 수면 장애, 거북목 증후군 등을 유발하여 신체적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정신적 문제도 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대인 관계의 단절, 강박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주의를 빼앗겨 주변 상황을 살피지 못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줄이고, 꼭 필요할 때만 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스마트폰 사용 시간 관리 앱을 활용하거나, 불필요한 알림 기능을 중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신에 독서나 운동 같은 다른 취미 활동을 한다면, 스마트폰 의존 정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할 때가 있듯이 지금은 나의 건강을 위해 스마트폰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 내용을 미리 제시하여 청중이 그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해야겠어.
- ② 발표 내용을 선정한 동기를 밝혀 청중이 문제의식을 가지도록 해야겠어.
- ③ 발표 내용과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도와야겠어.
- ④ 발표 중간에 질문을 던져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주의를 환기해야겠어.
- ⑤ 발표 내용을 다른 상황에 빗대어 청중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야겠어.

2. 학생이 ㉠~㉢을 활용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에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학생의 동영상을 제시하였다.
- ②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의존도의 차이를 보여 주기 위해 ㉡에 구체적인 수치를 도표로 제시하였다.
- ③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 주기 위해 ㉢에 연령대별 스마트폰 의존도를 도표로 제시하였다.
- ④ 스마트폰 과의존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에 정신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실태를 다룬 신문 기사를 제시하였다.
- ⑤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생기는 위험성을 알려 주기 위해 ㉢에 안전사고 발생 사례를 다룬 신문 기사를 제시하였다.

3. <보기>는 발표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다.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청중 1: 노모포비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점검표가 있지 않을까? 노모포비아에 대해 설명할 때 이 내용을 제시했다 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나중에 인터넷으로 노모포비아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봐야겠어.

청중 2: 노모포비아라는 개념을 알게 되어 유익했어. 며칠 전 복도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친구와 부딪친 적이 있었는데, 발표자의 말처럼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야겠어.

청중 3: 나도 사회 탐구 과제를 할 때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한 적이 있었는데, 믿을 수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면 신뢰성을 줄 수 있어. 그리고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할 때의 문제점을 새롭게 알게 되어서 좋았어.

- ① 청중 1은 발표 제재와 관련하여 발표자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궁금하게 여겼군.
- ② 청중 2는 발표 내용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태도를 바꿀 것을 다짐하였군.
- ③ 청중 3은 발표에서 언급한 인용 출처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군.
- ④ 청중 1과 청중 2 모두 발표 내용을 더 알아보기 위해 추가 정보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였군.
- ⑤ 청중 2와 청중 3 모두 발표를 통해 이전에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군.

[4~7] (가)는 모둠 학생들과 전문가의 면담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 1'이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안녕하세요. 생활 공간을 쾌적하게 가꾸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주변 정리 정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듣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면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 반가워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학생 1: 우선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리 정돈을 잘 하라는 말을 자주 들어서 그런데 저희는 '정리 정돈'이라는 말이 익숙한데,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정리'나 '수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전문가: ㉠ 그렇지 않아도 설명을 하려 했는데, 먼저 질문해 주셔서 고맙네요. 정리 정돈에는 '정리', '수납', '청소' 세 단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필요 없는 걸 버리는 게 정리, 필요한 걸 적절한 위치에 두는 게 수납, 더러워진 부분을 쓸고 닦는 게 청소랍니다. 시간을 들여 치웠는데 티가 별로 나지 않는 사람들은, 세 단계의 작업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정리부터 시작해서 수납, 청소로 나아가야 해요. 이 점을 이해하고 정리 정돈이란 말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 2: ㉡ 제가 세 단계의 작업을 동시에 하려고 해서 그동안 정리 정돈이 잘 되지 않았군요. 저는 책상이 늘 어질러져 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책상 정리 정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 ㉢ 앞서 말한 단계대로 '정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에 정리할 범위를 좁히는 방법을 써 보세요. 책상이라면 '서랍 하나', '필기구함'처럼 범위를 좁혀서 버릴 것을 찾는 거예요. '수납' 단계에서는 '1분야 1수납함' 방법을 써 보세요. 책상 위라면 적절한 폭의 파일꽂이들을 마련해 라벨을 붙인 다음, 책, 전선이나 케이블 등 성격이 같은 것끼리 모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로 뒷정리를 하면 됩니다.

학생 1: 학교 사물함 안이 어질러진 경우도 많은데, 말씀하신 수납 방법을 쓰면 효율적일 것 같아요.

학생 3: 학습지와 같은 유인물도 정리 정돈이 늘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 '정리'부터 말씀드리자면, '5초 안에 결정하기' 방법을 써 보세요. 유인물을 모두 꺼내 놓고 꼭 필요한지를 5초 안에 판단해 보관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는 것이지요. ㉣ 만약 5초 안에 판단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따로 분류해 두세요. 그리고 보관할 것을 '수납'할 때는, 앞서 말한 파일꽂이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때 유인물을 하위 분류하고 싶다면 클리어파일을 활용하여 겉면에 제목을 써서 파일꽂이에 보관하면 됩니다.

학생 3: ㉤ 책상이 이렇게 정리 정돈이 된다면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 정돈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가요?

전문가: '주 1회 15분 정리 정돈'을 당부하고 싶어요. 주말 오전처럼 여유 있는 시간을 정해 알람을 맞춰 두고 정리 정돈을 하는 겁니다. 생활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는 질서

있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리 정돈의 효용입니다. 생활 공간을 잘 가꾸어 지금과는 다른 생활을 해 나가길 바랍니다.

학생 2: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

여러 물건들로 어지러운 책상,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유인물들. 친구들을 보면 귀찮아서 정리 정돈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이 있어도 정리 정돈 방법을 몰라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우리 모둠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리 정돈의 단계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시간을 들여 치우는데 치운 티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무엇이 문제일까? 정리 수납 분야 전문가에 따르면, 정리 정돈에는 정리, 수납, 청소라는 세 단계가 있는데, 앞서 말한 사람들은 이 단계를 구분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정리는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 수납은 필요한 것을 적절한 위치에 두는 것, 청소는 더러워진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전문가는 이 단계를 차례대로 실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먼저 '정리'부터 살펴보자. 한 번에 정리해야 할 범위를 좁히는 방법, 필요와 불필요를 5초 안에 판단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책상 정리에 적용해 보면, 서랍 하나 혹은 필기구함 정도를 한 번에 정리할 범위로 정하고, 꼭 필요한 물건을 5초 안에 판단하여 정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납'을 살펴보자. 수납에는 '1분야 1수납함'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책상 위에 라벨을 붙인 파일꽂이를 수납함으로 두고 책은 책끼리, 유인물은 유인물끼리 모으는 식이다. 만약 파일꽂이에 모은 유인물을 하위 분류하고 싶다면, 클리어파일에 '학습지', '각종 안내문', '버리기 애매한 것'과 같은 제목을 붙여 모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는 정리와 수납 후 더러운 곳을 쓸고 닦는 것이다.

주 1회 15분의 시간을 정해 정리 정돈을 해 나가면 어떨까? 정리 정돈은 생활 공간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생활 전반이 잘 정돈된 질서 있는 삶으로 이어지게 한다. 제안한 내용들을 잘 살펴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생활을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자신이 말하려던 내용을 먼저 언급해 준 점에 대해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 ㉡ ㉡: 상대가 한 발화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 ㉢ ㉢: 앞선 자신의 발화 내용을 적용해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 ㉣ ㉣: 자신의 발화 내용이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고 대응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 ㉤ ㉤: 상대의 발화 내용을 수용하였을 때 일어나는 긍정적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

5. 다음은 (가)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회의이다. (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학생 1: 면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떠올려 보자. ㉠ 우선 방문한 목적과 함께 감사의 인사말을 전해야겠지?
 학생 3: 그래, 좋아. ㉡ 나는 유인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쭙보고 싶어.
 학생 2: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학교에서는 사물함, 집에서는 책상 아닐까? ㉢ 나는 사물함과 책상 정리 정돈 방법에 관해 질문하고 싶어.
 학생 1: ㉣ 우리는 '정리 정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정리', '수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 이유가 있는지 여쭙 봐야겠어.
 학생 3: 그래. ㉤ 정리 정돈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없는지도 여쭙보자.
 학생 2: 좋아. 지금까지 메모해 둔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서 보내줄게.

- ① ㉠ ② ㉡ ③ ㉢ ④ ㉣ ⑤ ㉤

6. (가)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정리 정돈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을 학생들이 언급했는데, (나)의 1문단에서 이를 서두에 제시하여 글을 시작하고 있다.
- ② (가)에서 전문가가 정리 정돈의 단계를 구분하지 않은 사례를 언급했는데, (나)의 2문단에서 이를 제시하고 질문을 던져 관심을 유도하였다.
- ③ (가)에서 전문가가 정리의 방법 두 가지를 서로 다른 대상에 각각 적용하여 언급했는데, (나)의 3문단에서는 한데 묶어 책상 정리에 적용하였다.
- ④ (가)에서 전문가는 수납함 안 유인물의 하위 분류 방법을 언급했는데, (나)의 4문단에서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 ⑤ (가)에서 전문가가 정리 정돈을 위한 실천 방안을 당부하였는데, (나)의 5문단에서는 여기에 글쓰기가 제안하는 실천 방안을 추가하였다.

7. <조건>에 따라 (나)에 제목을 붙인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 글에서 다룬 정리 정돈의 단계 중 두 가지를 포함할 것.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정리 정돈의 효용을 밝힐 것.

- ① 제대로 된 정리와 수납으로 질서 있는 삶의 디딤판 놓기
- ② 책상용 수납함을 구입하여 도서관 같은 분위기 연출하기
- ③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작은 실천으로 혼돈 상태 벗어나기
- ④ 잘 버리고 제 위치에 두어 깨끗한 일상생활 공간 창출하기
- ⑤ 책상 정리와 유인물 수납을 통해 새로운 삶의 모습 만들어가기

[8~10]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의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상황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떡'을 소개하는 글을 써서 교지에 싣고자 한다.

○ 학생의 글

간식으로 먹는 떡볶이의 떡부터 명절에 먹는 송편까지, 떡은 대표적인 전통 음식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음식이 곧 약'이라고 생각하였고, 절기에 따라 떡을 먹으며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녕을 빌었다.

[A] 떡의 기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쌀농사가 본격화된 삼국 시대에 이르러 떡이 널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선 시대에 와서는 과일, 꽃, 약재 등 갖가지 재료를 추가하여 맛과 색깔, 모양이 다른 여러 종류의 떡이 만들어졌고, 서울 남산 북쪽에 떡을 만들어 파는 가게가 거리를 이룰 정도로 떡이 인기를 끌었다.

조선 시대의 문헌 자료를 보면, 떡은 만드는 방법에 따라 크게 증병, 도병, 경단 등으로 나뉜다. 증병(甑餅)은 시루에 찌는 떡으로 시루떡과 백설기 등이 있고, 도병(搗餅)은 시루에 찢은 떡을 절구에 다시 친 것으로 인절미가 대표적이다. 경단(瓊團)은 둥글게 빚어 삶아 고물을 묻힌 떡으로 수수경단이 대표적이다.

제조 방법이 다소 까다롭고 보관이 어려웠던 떡은 현대로 접어들면서 서구화의 물결과 간편식의 발달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명절이나 돌잔치 같은 행사 외에는 떡을 접할 기회가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제조와 보관 기술의 발달과 제품 개발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떡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

떡은 주재료인 쌀과 찹쌀에 필수아미노산, 폴리페놀이 풍부하고, 견과류, 제철 채소와 과일 등 추가 재료에 따라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할 수 있어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게다가 떡의 온라인 판매 시장이 확장되면서 국내 시장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한류 콘텐츠나 한식의 인기에 힘입어 떡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떡의 연구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세계인이 떡을 즐기는 날도 머지않을 것이다.

8.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 중 글에 반영된 것은?

- ㉠ 떡을 만드는 방법과 그에 따른 예를 제시해야겠어.
- ㉡ 떡에 사용되는 재료의 시대별 특징을 설명해야겠어.
- ㉢ 떡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이유를 언급해야겠어.
- ㉣ 떡의 주재료와 추가 재료를 구분하는 기준을 언급해야겠어.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9. <보기>는 ‘학생의 글’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ㄱ. 논문 자료
조선 시대에 지어진 『규합총서』에는 떡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증병, 도병, 경단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동국세시기』에는 단오의 숙절편, 동지의 골무떡 등 주요 절기에 먹는 떡이 기록되어 있다.

ㄴ. 신문 기사

연도	떡류 수출액 (단위: 달러)
2018	2,461만
2019	3,431만
2020	5,380만

떡류 수출액이 해마다 증가하여 매년 50% 내외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레토르트 기술을 떡에 적용하여 맛과 질감의 변화 없이 떡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ㄷ. 전문가 인터뷰
“트렌드와 건강에 민감한 세대의 취향을 고려하여 떡이 변하고 있습니다. 크림떡, 떡 샌드위치와 같이 빵 대신 떡을 활용한 디저트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 결과 떡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떡은 빵과 달리 글루텐 제외(Gluten-free) 식품이라 글루텐 민감증이 있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 ① ㄱ을 활용하여, 1문단에 조상들이 절기에 따라 먹었던 떡의 예를 제시해야겠어.
- ② ㄱ을 활용하여, 3문단에 떡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 문헌 자료가 무엇인지를 언급해야겠어.
- ③ ㄴ을 활용하여, 6문단에 떡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추가해야겠어.
- ④ ㄱ과 ㄴ을 활용하여, 5문단에 떡이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에 추가하는 자료로 제시해야겠어.
- ⑤ ㄴ과 ㄷ을 활용하여, 4문단에 떡의 보관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제품 개발이 떡의 판매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제시해야겠어.

10. <보기>는 [A]의 초고이다. <보기>를 [A]로 고쳐 쓸 때 반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삼국 시대에 이르러 떡이 널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선 시대에 와서는 갖가지 재료를 추가하여 맛과 색깔, 모양이 다른 여러 종류의 떡이 만들어지며, 인기를 끌었다.

- ① 떡의 기원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면 어떨까?
- ②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떡의 종류를 나열하면 어떨까?
- ③ 조선 시대 떡의 인기를 보여 주는 사례를 언급하면 어떨까?
- ④ 조선 시대에 떡을 만들 때 추가한 재료를 제시하면 어떨까?
- ⑤ 삼국 시대부터 떡의 제조가 활성화된 배경을 밝히면 어떨까?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사는 일반적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하는 의존 형태소로서, 기능과 의미에 따라 격 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로 나눌 수 있다.

격 조사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게 해 주는 조사로서, 주격, 목적격, 관형격, 부사격, 서술격, 보격, 호격 조사로 나눌 수 있다. 주격 조사는 ‘이/가, 에서’ 등으로, 체언이 주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며, 목적격 조사는 ‘을/를’로, 체언이 목적어의 자격을 가지게 한다. 관형격 조사는 ‘의’로, 체언이 관형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며, 부사격 조사는 ‘에, 에게, 에서, (으)로, 와/과’ 등으로, 체언이 부사어의 자격을 가지게 한다. 보격 조사는 ‘이/가’로,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체언이 보어의 자격을 가지게 한다. 서술격 조사는 ‘이다’로 체언이 서술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고, 호격 조사는 ‘아/야, (이)시여’ 등으로 체언이 호칭어가 되게 하는 조사이다.

접속 조사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로 ‘와/과’가 대표적이며 ‘하고, (이)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보조사는 특별한 의미를 덧붙여 주는 조사로 ‘도, 만, 까지, 요’ 등이 속한다. 보조사는 체언 뒤는 물론이고, 여러 문장 성분 뒤에도 나타날 수 있다.

조사는 서로 겹쳐 쓰기도 하는데, 이를 **조사의 중첩**이라 한다. 그러나 겹쳐 쓸 때 순서가 있다.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보격 조사, 관형격 조사는 서로 겹쳐 쓸 수 없으나 보조사와는 겹쳐 쓸 수 있는데, 대체로 보조사의 뒤에 쓴다. 부사격 조사는 부사격 조사끼리 겹쳐 쓸 수 있고 다른 격 조사나 보조사와도 겹쳐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격 조사나 보조사의 앞에 쓴다. 보조사는 보조사끼리 겹쳐 쓸 수 있고 순서도 자유로운 편이지만, 의미가 모순되는 보조사끼리는 겹쳐 쓰기 어렵다.

11. 밑글을 바탕으로 밑줄 친 부분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가 오는데 바람까지 분다.’의 ‘까지’는 다시 그 위에 더한다는 의미를 가진 보조사이다.
- ② ‘나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닮았다.’의 ‘와’는 ‘어머니’와 ‘닮았다’를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 ③ ‘우리 동아리에서 학교 축제에 참가하였다.’의 ‘에서’는 단체 명사 뒤에 쓰이는 주격 조사이다.
- ④ ‘신이시여, 우리를 보살피소서.’의 ‘이시여’는 어떤 대상을 정중하게 부를 때 쓰는 호격 조사이다.
- ⑤ ‘철수는요 밥을요 먹어야 하거든요.’의 ‘요’는 다양한 문장 성분의 뒤에 쓰여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12. ㉠~㉣을 통해 [조사의 중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길을 걷다가 철수가를* 만났다.
 - ㉡ 그 말을 한 것이 당신만이(당신이만*) 아니다.
 - ㉢ 그녀는 전원에서의(전원의에서*) 여유로운 삶을 꿈꾼다.
 - ㉣ 모든 관심이 나에게로(나로에게*) 쏟아졌다.
 - ㉤ 빵만도* 먹었다.
- *는 비문 표시임.

- ① ㉠에서는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는 겹쳐 쓸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에서는 보조사와 보격 조사가 결합할 때 보격 조사가 뒤에 쓰였군.
- ③ ㉢에서는 부사격 조사와 관형격 조사가 결합할 때 관형격 조사가 뒤에 쓰였군.
- ④ ㉣에서는 부사격 조사와 보조사가 결합할 때 부사격 조사가 보조사 앞에 쓰였군.
- ⑤ ㉤에서는 유일함을 뜻하는 ‘만’과 더함을 뜻하는 ‘도’의 의미가 모순되어 겹쳐 쓰기 어렵군.

13. <보기>는 표준 발음법 중 ‘받침 ‘ㅎ’의 발음’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표준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ㅎ(ㄷ, ㄹ)’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ㄱ, ㄷ, ㅈ]으로 발음한다.
 - ㉡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 ㉢ ‘ㅎ(ㄷ, ㄹ)’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 ① ‘물이 끓고 있다.’의 ‘끓고’는 ㉠에 따라 [끓코]로 발음한다.
- ② ‘벽돌을 쌓지 마라.’의 ‘쌓지’는 ㉠에 따라 [싸치]로 발음한다.
- ③ ‘배가 항구에 닿네.’의 ‘닿네’는 ㉡에 따라 [단네]로 발음한다.
- ④ ‘마음이 놓여.’의 ‘놓여’는 ㉢에 따라 [노여]로 발음한다.
- ⑤ ‘이유를 묻지 않다.’의 ‘않다’는 ㉢에 따라 [안타]로 발음한다.

14. <보기>의 ㉠, ㉡이 모두 ㉢을 실현하고 있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국어의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와 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시점인 사건시를 기준으로, ㉠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는 경우,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경우,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나중인 경우로 나뉩니다. 이때 시제는 ㉡ 선어말 어미, ㉢ 관형사형 어미, 시간 부사어 등을 통해 실현됩니다.

- ① 지난번에 먹은 굴이 맛있었다.
- ② 이것은 내일 내가 읽을 책이다.
- ③ 이미 한 시간 전에 집에 도착했다.
- ④ 작년에는 겨울에 함박눈이 왔었다.
- ⑤ 친구는 지금 독서실에서 공부를 한다.

15. <보기>의 ㉠~㉣에 나타나는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중세 국어] 넷 마릭 ㉠ 닐오디 어딘 일 ㉡ 조초미 노픈 디 울음 곤고

[현대 국어] 옛말에 이르되 어진 일 좃음이 높은 데 오름 같고

[중세 국어] 善善慧響 ㉢ 對甞答답호샤디 부텃기 받즈보리라

[현대 국어] 선혜가 대답하시되 “부처께 바치리라.”

[중세 국어] 烽火 | ㉣ 석드를 ㉤ 니세시니

[현대 국어] 봉화가 석 달을 이어지니

- ① ㉠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 ② ㉡에서 이어 적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에서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에서 체언에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에서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자음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16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식물의 품종이란 같은 종류의 식물을 고유한 특징에 따라 나눈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딸기의 품종에는 과실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좋은 매향, 수확기가 이르고 키우기 쉬운 설향, 당도가 높고 기형 과실의 발생이 적은 죽향 등이 있다. 품종의 개량은 이전 품종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거나 장점을 더욱 ㉠ 부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품종의 개량이 판매 증대로 이어지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노력과 경제적 비용을 들여 품종을 개량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육성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육성자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 육성자의 식물 품종 개량을 촉진하며, 우리나라 종자 산업의 발전을 ㉡ 도모하기 위하여 ‘식물 신품종 보호법’을 실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열매의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과수, 산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임목, 꽃의 관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훼 등 모든 식물이 품종보호의 대상이 된다.

만약 육성자가 자신이 개량한 식물의 품종보호권을 얻고 싶다면 먼저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 요건을 ㉢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그 요건에는 크게 신규성, 구별성, 안정성 등이 있다. ‘신규성’은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의 일정 기간에 상업적 이용이 없을 때만 인정된다. 과수나 임목의 종자나 수확물은 국내에서 1년 이상 국외에서 6년 이상일 경우에 인정되며, 그 이외의 식물의 종자나 수확물은 국내에서 1년 이상 국외에서 4년 이상일 경우에 인정된다. ‘구별성’은 기존에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이나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품종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 ‘안정성’은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품종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할 경우에 인정된다.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면, 육성자는 품종의 명칭, 품종의 육성 과정에 대한 설명, 품종의 종자 시료 등을 포함한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외자(在外者)*가 품종을 개량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 모두에서 품종보호권을 얻고 싶다면 두 나라에 각각 품종보호를 출원해야 한다. 재외자인 육성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에 최초로 품종보호를 출원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우리나라에 품종보호를 출원하는 경우, 품종보호 출원일의 적용은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이 아니라 최초의 출원일을 품종보호 출원일로 인정한다.

품종보호 출원이 접수되면 담당 기관은 접수된 출원 내용을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품종보호 공보*로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공개한다. 출원품종이 품종보호 요건을 위반하고 있음을 발견한 이라면 누구든지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다면,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심사관이 출원품종이 품종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 ㉣ 심사하게 된다. 이때 신규성의 충족 여부는 서류 심사로, 구별성과 안정성의 충족 여부는 재배 심사로 확인한다. 재배 심사는 출원 서류에 포함된 종자 시료를 직접 재배하여 심사하므로 심사에 1년에서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심사관이 심사 과정에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해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면 품종보호를 결정하게 되고, 육성자가 담당 기관에 첫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면 품종보호권이 설정된다.

품종보호권자가 보호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인 품종보호권의 존속 기간은 과수나 임목은 품종보호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25년으로, 그 이외의 식물은 2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때 품종보호권자가 품종보호권을 유지하려면 품종보호권의 존속 기간 동안 품종보호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품종실시료를 지불해야 한다. 단, 새로운 품종의 육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등에는 품종실시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품종실시료의 기준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권리와 사용자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품종보호권의 존속 기간이 ㉤ 경과하거나, 품종보호권의 존속 기간 중일지라도 품종보호권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품종실시료의 지불 없이 누구나 해당 품종을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육성자: 어떤 식물이나 동물의 종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품종을 개량하여 이용 가치를 더 높인 사람.

*재외자: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또는 외국 국적의 사람.

*공보: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문서.

*실시: 보호품종의 종자나 수확물을 증식·생산·판매하는 등의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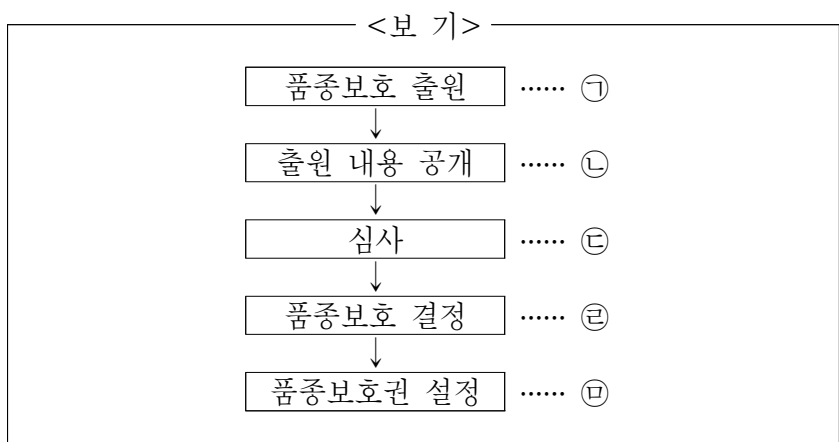
16.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품종보호권의 발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품종보호권에 대한 대립적인 입장을 소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③ 식물 신품종 보호법이 제정된 배경을 밝히고 그 법이 가진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 ④ 식물 신품종 보호법의 필요성을 밝히고 품종보호권의 설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품종보호권에 관한 사회 문제를 언급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1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품종보호권의 존속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면 품종보호권이 유지된다.
- ② 식물 신품종 보호법에서 품종보호의 대상은 열매의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식물만 가능하다.
- ③ 품종보호권이 소멸되지 않은 품종에 대한 실시료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계약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된다.
- ④ 신규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때 국외에서 해당 품종의 상업적 이용이 없어야 하는 기간은 과수보다 화훼가 더 길다.
- ⑤ 재외자가 품종을 개량하여 거주하는 나라에 품종보호권을 설정하면 우리나라에 품종보호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그 권리가 인정된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품종보호권 설정을 위한 절차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품종보호권의 설정을 원하는 육성자는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 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 ② ㉡: 출원품종이 품종보호 요건을 어긴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 출원품종이 타 품종과 구별되는지, 반복 증식 후에도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지는 재배 심사로 확인한다.
- ④ ㉣: 심사관이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경우에 품종보호가 결정된다.
- ⑤ ㉤: 품종보호가 결정된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료의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설정된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례 1] 외국에 살고 있는 ‘갑’은 장미꽃의 품종 중 하나를 A로 개량하였다. ‘갑’은 A에 대한 최초의 품종보호를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에 2020년 1월 1일에 출원하였고, 우리나라에는 2020년 5월 1일에 출원하였다. 우리나라에서 A의 품종보호권은 ‘갑’이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사례 2] 포도나무의 품종 중 하나인 B는 당도가 높지만 병충해에 약하다. 우리나라에서 B의 품종보호권은 ‘을’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병’은 신품종 육성을 목적으로 B를 재배하면서 연구하였는데, 당도도 높고 병충해에 강한 C로 개량하여 우리나라에 품종보호를 출원하였다.

- ① [사례 1]에서 ‘갑’은 2020년 5월 1일에 우리나라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였지만, A의 품종보호 출원일은 2020년 1월 1일로 인정되겠군.
- ② [사례 2]에서 ‘병’의 연구로 개량된 C는 기존 품종인 B가 가진 단점이 보완된 품종이겠군.
- ③ [사례 2]에서 ‘병’은 B의 재배로 인한 품종실시료를 B의 품종보호권을 가진 ‘을’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군.
- ④ 심사관의 서류 심사를 통해 [사례 1]의 A와 [사례 2]의 B가 모두 신규성을 충족하고 있음이 인정되었겠군.
- ⑤ 품종보호료를 앞으로도 매년 납부한다고 할 때 품종보호권자가 보호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은 [사례 1]의 A가 [사례 2]의 B보다 더 길겠군.

20.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사물을 특징지어 두드러지게 함.
- ② ㉡: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움.
- ③ ㉢: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함.
- ④ ㉣: 자세하게 조사하여 당락 따위를 결정함.
- ⑤ ㉥: 어떤 곳을 거쳐 지남.

[21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昨過永明寺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暫登浮碧樓 잠시 부벽루*에 올랐네
 城空月一片 텅 빈 성엔 조각달 떠 있고
 石老雲千秋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麟馬去不返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天孫何處遊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서 노니는가
 長嘯倚風磴 돌다리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부노라
 山靑江自流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 이색, 「부벽루(浮碧樓)」 -

* 부벽루: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 있는 누각.
 * 기린마: 고구려 동명왕이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상상의 말.
 * 천손: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을 가리킴.

(나)

와룡산(臥龍山) 나린 아래 반무당(半畝塘)*을 새로 여니
 티끌 없는 거울에 산영(山影)이 잠겼구나
 이 내의 경영(經營)하는 뜻은 그를 보려 하노라

<제1수>

도원(桃源)이 있다 하여도 예 듣고 못 봤더니
 홍하(紅霞)*이 만동(滿洞)하니 이 진짓 거기로다
 이 몸이 또 어떠하뇨 @ 무릉인(武陵人)인가 하노라

<제14수>

내 빈천(貧賤)을 보내려 한들 이 빈천 뉘게 가며
 남의 부귀(富貴) 오라고 한들 저 부귀 내게 오라
 보내지도 청하지도 말오 내 분대로 하리라

<제20수>

다만 한 간 초옥(草屋)에 세간도 많기도 많구나
 나하고 책하고 벼루 붓은 무슨 일이고
 이 초옥 이 세간 가지고 아니 즐기고 어찌하리

<제34수>

어와 벗님네야 모두 모두 죄 오시니
 이 산정(山亭) 이 늙은이 오늘날 더 즐겁다
 비록 임심노흑(林深路黑)*하나 마나 자주 자주 오소서

<제48수>
 - 김득연, 「산중잡곡(山中雜曲)」 -

* 반무당: 조그만 연못.
 * 홍하: 해 주위에 보이는 붉은 노을.
 * 임심노흑: 숲이 우거져 햇빛이 들지 않아 길이 어둑어둑함.

(다)

달관한 사람에게는 괴이한 것이 없으나 ㉞ 속인(俗人)들에게는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 이른바 ‘본 것이 적으면 괴이하게 여기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 달관한 사람이라 해서 사물들을 일일이 찾아 눈으로 직접 보았겠는가. 한 가지를 들으면 열 가지를 눈앞에 그려보고, 열 가지를 보면 백 가지를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았을 뿐이다. 천만 가지 괴기한 것들이란 도리어 사물에 잠시 붙은 것이고, 자기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다. 따라서 마음이 한가롭게 여유가 있으며, 사물에 응수함이 무궁무진하다.

반면 본 것이 적은 자는 해오라기를 기준으로 까마귀가 검다고 비웃고, 오리를 기준으로 학의 다리가 길다고 위태롭다고 여긴다. 그 사물 자체는 본디 괴이할 것이 없는데 저 혼자 화를 내고, 한 가지 일이라도 제 생각과 같지 않으면 만물을 모조리 모함하려 든다.

아! 저 까마귀를 보라. 그 깃털보다 더 검은 것이 없건만, 홀연 열린 황금빛이 번지기도 하고 다시 연한 녹색을 발하기도 한다. 해가 비치면 자주색이 튀어 올라, 눈에 어른거리다가 비취색으로 바뀐다. 그렇다면 내가 그 새를 푸른 까마귀라 불러도 될 것이고, 붉은 까마귀라 불러도 될 것이다. 그 새에게는 본래 일정한 색이 없는데도, 내가 눈으로 먼저 그 색깔을 정한 것이다. 어찌 단지 눈으로만 정했으리오. 보지도 않고서 먼저 마음속으로 정해 버린 것이다.

아! 까마귀를 검은색에 가두어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거늘, 다시 까마귀를 기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색을 가두어 두려는구나. 까마귀가 과연 검기는 하지만, 앞서 말한 푸른색과 붉은색이 까마귀의 검은색 중에 들어 있는 빛인 줄 누가 또 알겠는가. 검은색을 일러 어둡다고 하는 것은 비단 까마귀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색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물은 검기 때문에 사물을 비출 수가 있고, 옷칠도 검기 때문에 능히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색이 있는 것치고 빛이 있지 않은 것이 없으며, 형체가 있는 것치고 맵시가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중략)

세상에는 달관한 사람은 적고 속인들만 많으니, 내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쉬지 않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아, 연암 노인이 연상각(烟湘閣)에서 쓰노라.

- 박지원, 「능양시집서(菱洋詩集序)」 -

21. (가)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답 구조를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반영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색채어의 대비를 통해 시적 대상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 : 화자는 대상이 지닌 속성을 활용하여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제14수> : 화자는 아름다운 경치에서 이상 세계의 면모를 발견하고 있다.
- ③ <제20수> : 화자는 세속적 가치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분수를 지키려 하고 있다.
- ④ <제34수> : 화자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쓰며 즐기는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⑤ <제48수> : 화자는 자신이 거처하는 곳에 사람들이 자주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문학 작품 속 공간은 단순한 배경을 넘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장치로 사용되기도 한다. (가)에서 부벽루는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하는 퇴락한 공간으로, 역사적 전환기를 맞는 지식인이 역사의 유한함에 대해 무상감을 느끼는 장소이다. (나)에서 산중은 화자가 만족감을 누리는 공간으로, 자연 속에서 삶을 즐기며 늙어가는 장소이다.

- ① (가)의 '텅 빈 성'에서 인간 역사의 유한함을 느낀 화자는 '구름'과 '바위'를 바라보며 감회에 젖어 있군.
- ② (가)의 '돌다리'에서 '휘파람'을 부는 화자는 역사적 전환기의 지식인인 '천손'을 떠올리며 쓸쓸함을 느끼고 있군.
- ③ (가)의 '산'과 '강'의 변함없는 모습은 퇴락한 역사적 공간과 대비되어 화자가 느끼는 무상감을 더욱 부각하고 있군.
- ④ (나)의 '한 간 초옥'에서 화자는 '책', '벼루 붓'과 함께하는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군.
- ⑤ (나)의 '산정'에 있는 화자는 스스로를 '늙은이'라 칭하며 자연 속에서 삶을 즐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24.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글쓴이는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사물의 다양한 현상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대상의 외양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적 속성을 파악해야 대상의 참모습을 인식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를 통해 관습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열린 사고를 지향하는 글쓴이의 통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자기 생각과 '한 가지 일'이라도 다르면 '만물'을 포함하려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로 볼 수 있겠군.
- ② 까마귀를 '푸른 까마귀'나 '붉은 까마귀'로 부르는 것이 모두 옳다고 여기는 것은 대상의 참모습을 파악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겠군.
- ③ 까마귀의 '일정한 색이 없'다는 인식은 '눈'으로 정한 대상의 외양보다는 '마음속'으로 정한 본질적 속성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검은색을 일러 어둡다고 하는 것'은 '물'과 '옷칠'에서 사물을 비출 수 있다는 속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관습적인 태도에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달관한 사람'이 적은 현실에서 '입을 다물'기보다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치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군.

25. ㉠와 ㉡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에게 과거에 대한 후회를, ㉡는 글쓴이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를 유발한다.
- ② ㉠은 화자가 누리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는 글쓴이가 경계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③ ㉠은 화자에게 삶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는 글쓴이에게 구체적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 ④ ㉠은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에 대한 예찬을, ㉡는 글쓴이가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체념을 드러낸다.
- ⑤ ㉠은 화자가 인식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을, ㉡는 글쓴이가 발견한 사물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낸다.

[26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리치료는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대부분의 심리치료는 상처, 결핍, 장애 등의 신경증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이 제거되어 고통에서 벗어난 일상을 지향한다. 그러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은 삶의 고통은 인간 실존의 일반적 구성 요소이며,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심리치료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견뎌내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랭클은 현대인이 자신의 존재가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느끼는 감정, 즉 실존적 공허감을 겪고 있다고 보아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그는 프로이트와 아들러로 대표되는 기존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펼쳤다.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인간의 무의식을 발견하고 그 중요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프랭클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을 겪는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그는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성적 본능, 공격성 등과 같은 쾌락 의지를 원초적 욕구로 갖는데, 어린 시절에 이러한 쾌락 의지가 좌절되어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다가 이후 신경증을 유발한다. 프로이트는 사람의 행동, 사상, 정서를 결정하는 원인을 오직 쾌락 의지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의 심리치료는 잠재된 무의식 속 성적 본능, 공격성 등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프랭클은 프로이트가 인간을 단순히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 등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 파악하는 점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프랭클은 무의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인간은 본능과 충동의 차원을 넘어선 영적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본능과 충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책임감, 양심 등이 감추어져 있다고 보았다. 프랭클은 이를 영적 무의식이라 명명하고, 현대인의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은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아들러의 심리학은 프랭클이 자유와 책임을 인간 존재의 본질로 파악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아들러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타인보다 우월하고 싶은 권력 의지로 보았다. 그런데 인간의 타고난 기질적 불완전성 때문에 우월성에 대한 추구는 자동적으로 열등감을 발생시키고, 그 결과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갖게 된다. 이에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권력 의지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자유이다. 이 과정에서 삶의 목적을 부적절하게 설정하거나 부적응적 행동을 선택하게 되면 신경증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의 심리치료는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여 부적절한 동기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프랭클은 아들러가 인간을 자기 결정권과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원초적 욕구를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결정적 요소로 보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프랭클은 인간이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원초적 욕구가 인간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처럼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프랭클은 자유의지를 지닌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였

다. 그는 실존적 공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심리치료 기법으로 의미 치료를 제시하였다. 의미 치료는 삶에 대한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에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하여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더 이상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무리 부정적이고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이 주어진 상황과 조건들에 맞설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본 점은 프랭클 심리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 화제의 특징을 다른 이론들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 ② 중심 화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중심 화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 ④ 중심 화제의 변화 과정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고 있다.
- ⑤ 중심 화제의 등장 배경을 제시한 후 다양한 분야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고 있다.

2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프로이트는 사람의 행동이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 ② 아들러는 열등감은 누구나 갖는 것으로 그 자체는 신경증이 아니라고 보았다.
- ③ 아들러는 열등감으로 인해 타인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 보았다.
- ④ 프랭클은 인간을 본능과 충동의 차원을 넘어선 영적 존재로 보았다.
- ⑤ 프랭클은 무의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28.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고통은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 ② 원초적 욕구로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 ③ 심리학자에 따라 원초적 욕구가 무엇인지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 ④ 인간은 원초적 욕구를 극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 ⑤ 원초적 욕구가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9. ‘프랭클’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극한 상황에서 유대인 수용자들이 보인 태도는 다양하였다.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여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픈 몸으로 노약자를 보살피 주거나 독가스실로 끌려가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 ① 극한 상황에 처한 수용자들을 통해 고통은 인간 실존의 일반적 구성 요소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독가스실에 끌려가면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좌절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 ③ 아픈 몸으로 노약자를 보살피 주는 사람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긍정적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 ④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여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삶에 대한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자유롭고자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 ⑤ 수용자들이 보인 다양한 반응을 통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0.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A는 형과 비교당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형은 건강하고 활달한 모범생이었으나, A는 병치레로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이후 신체적 병은 나았지만, A는 여전히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에 괴로워하며 매사 자신감 없이 행동한다.

- ① 프로이트의 심리치료는 A의 어린 시절에 주목하여 당시에 억압된 쾌락 의지가 있다고 전제한다.
- ② 프로이트의 심리치료는 A가 겪는 괴로움의 원인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 ③ 아들러의 심리치료는 A가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여 자신감 없는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제한다.
- ④ 아들러의 심리치료는 A가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것이 권력 의지가 좌절된 원인임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 ⑤ 프랭클의 심리치료는 A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실존적 공허감에서 벗어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도록 돕는다.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명나라의 진성운은 순경, 호원, 학녹을 만나 연을 맺고 문무의 재주를 익힌다. 적군이 침략하여 천자가 동관으로 피란하자 성운은 적을 무찌르고 천자를 구하여 대원수가 된다. 그러나 금인국 장수 중행달과 맹호원이 쳐들어와 천자와 그 가족은 다시 위험에 처한다.

원수가 생각하기를, ‘중행달은 천하 명장이라. 조용히 잡지 못할 것이니 다른 술법으로 잡으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밤이 깊은 후에 원수는 갑옷과 투구를 벗어 놓고 초의를 입고 갈건을 쓰고 청려장을 짚고 중행달의 침소로 갔다. 이때 중행달이 잠이 깊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 곁에 앉아 행달을 깨웠다. 행달이 놀라 일어나자 원수가 천연히 위로하며 말하기를,

“그대는 놀라지 말지어다. 나는 금인국 백화산의 신령이라. 세상을 둘러보니 중국이 어진 천자를 얻지 못하여 백성도 탄 중에 들었으니, 하늘이 노하시어 장군으로 천하를 평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대명 대원수 진성운은 천하의 명장이라, 그대가 조용히 잡지는 못할 것이다. 내일 아침에 태풍이 일어날 것이니, 장군은 배를 낚날이 육지로 흩어 놓으라. 바람이 일어나면 배가 풍비박산할 것이니, 모든 배를 한데 잡아매도록 하라.”

하고는 몸을 날려 공중으로 솟아오르며 사라졌다. 이에 중행달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귀신이 나를 도우니 이제는 무슨 염려 있겠느냐?”

하고는 그 말대로 배를 낚날이 한데 잡아매었다.

원수가 본진에 돌아가 제장과 의논하기를,

“적진이 분명히 배를 한데 잡아매는 것이니, 제장은 적진의 사면에서 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방포 일성*에 들어가 배에 불을 질러라.” 하고, 순경과 학녹에게 말하기를

“정병 오천씩 거느리고 적진 좌우에 매복하였다가 불이 일어남을 보고 또 군사를 놓아 쳐라.” 하고는 때를 기다렸다.

밤이 밝아오자, 원수가 장대*에 올라 진풍경*을 외우니 난데없는 바람이 서북에서 일어나며 먼지가 천지에 자욱하였다. 중행달은 바람이 일어남을 보고 즐겨 말하기를,

“어젯밤 신령의 말이 옳구나!” 하고 즐거워하였다.

뜻밖에 불이 일어나더니 배가 모두 불탔다. ㉠ 배를 한 곳에 잡아매었으니 따로 떨어질 수도 없었고, 모진 바람이 급하게 부니 불꽃을 잡을 길이 없었다. 그 와중에 사면에서 순경과 학녹이 군사로 급히 몰아쳤다. 고각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고 바람 소리 또한 천지를 진동했다. 이렇게 뜻하지 못한 화를 만나자 장수와 장졸이 각각 도망하다가 서로 밟혀 죽는 것이 부지기수로 만여 명이 되었다. 중행달이 수백만 군사를 강 가운데서 잃고, 탄식하며 도망하여 녹림산으로 갔다.

원수가 적국을 파하고 승전고를 울리며 동관성에 들어갔다. 모든 신하와 천자가 원수의 손을 잡고 못내 칭찬하니, 여러 충신 등이 다 태평가를 부르며 천자께서도 대장수라 외쳤다. 원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천자와 백관과 더불어 장안에 도달하였다.

이때 금인국 장수 맹호원이 십만 대병을 거느리고 녹림산으로 급하게 달려왔다. 과연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 자매가 녹림산에 피란을 와 있었는데, 불의에 맹호원이 나타나 군사로 녹림산을 둘러쌌다. 그리고는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 자매를 데려다가 진중에 두고 기다리는데, 중행달이 대군을 패하고 녹림산으로 들어왔다. 맹호원이 황후, 태자, 공주 세 자매를 데려다가 군중에 두

니 중행달이 말하기를,
 “이제 천자가 항복하는 것은 어렵지 아닐 것이다.”
 하고, 동관에 들어가 군사를 웅거하게 하였다. 또한 성중에 지하 감옥을 만들어 황후, 태자, 공주 세 자매를 그곳에 가두고 장안으로 격서*를 전하여 말하기를,
 “만일 천자가 항복하지 아니하면 황후, 태자, 공주 세 자매를 죽이리라.” 하기에, 천자가 격서를 보시고 크게 근심하여,
 “이 일을 어찌할까?” 하시니, 진성운이 대답하기를,
 “폐하는 너무 근심 마십시오. 소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보겠습니다.” 하였다.
 성운이 정병 백만을 거느리고 순경과 호원과 학녹을 데리고 녹림산으로 나갔다. 성 밖에 진을 치고 이삼 일을 유진*하였는데, 중행달이 종시 나오지 아니하고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성운이 순경에게,
 “그대가 접전하되, 만일 적이 성문을 열고 나오면 내가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다가 달아날 것이니, 그때 재빨리 성에 들어가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 자매를 뒤흔고 급히 나오도록 하라.”
 하고, 군사 대여섯 명에게 적병의 옷을 입혀 진문 밖에 세우고는 군사가 좌우에서 웅위하게 하였다.
 그리고 성운이 성 위에 올라 외치며 말하기를,
 [B] “적장은 나의 재주를 모르느냐? 아느냐? 어젯밤에 내가 이미 너의 진중에 들어가서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 자매를 모셔다가 진문 밖에 계시게끔 하였다. 네가 이제는 성중에 천년을 있어도 쓸데없을 것이니 급히 나와 승부를 결단하자.”
 중행달이 그 말을 듣고 성운의 진을 바라보니, 과연 금인의 옷을 입은 사람 대여섯이 그 진중에서 군사들의 웅위를 받고 있었다. 이에 중행달이 탄식하며,
 “진성운의 재주는 과연 귀신 같구나! 어느 사이에 들어와 데리고 갔는가?”
 하고, 마침내 군사를 재촉하여 성문을 열고 접전하였다. 성운이 군사를 몰아 크게 싸우다가 급히 도망하니, 중행달이 승승장구하여 쫓아오면서 말하기를,
 “계속 접전하였으면 진성운의 머리를 베었을 것이다.”
 하며 계속 뒤쫓아왔다.
 이때 순경과 학녹과 호원이 군사를 거느리고 급히 성을 넘어가 보니, 과연 지하 감옥에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 자매가 갇혀 있었다. 순경이 급히 모시고 나와서 학녹에게 군사 사천을 주어,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 자매를 모시고 장안으로 가라.”
 하고, 순경과 호원은 중행달을 쫓아 군사를 재촉하였다.
 이때 성운이 도망치기를 멈추고, 군사를 몰아 중행달의 군사를 앞뒤로 둘러싸니, 천하 명장인들 이에서 어찌 벗어나겠는가?
 그중에 순경과 호원이 장창단검으로 적진 중에 들어가 좌우를 치고 죽이니, 중행달이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을 줄 알고는 칼을 빼어 자결하고, 맹호원은 남은 군졸과 함께 항복하였다.
 원수가 적장을 장대 아래 꿰리고 죄를 묻은 후에 대군을 거느리고 승전곡과 태평가를 부르며 들어오니, 천자가 남문 밖에 나와 원수를 맞아들이고 크게 칭찬하였다.

- 작자 미상, 「진성운전」 -

* 방포 일성: 군중의 호령으로 총을 한 번 쏘아 소리를 냄.
 * 장대: 장수가 올라서서 명령·지휘하던 대.
 * 진풍경: 먼지 섞인 바람을 일으키게 하는 경전의 일종.
 * 격서: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 유진: 군사들이 머물러 있음.

3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학녹은 순경과 함께 적진 근처에 매복해 있다가 불을 보고 적을 공격하였다.
- ② 맹호원은 군대를 이끌고 녹림산으로 달려와 천자와 그 가족을 사로잡았다.
- ③ 중행달은 성운과 다시 맞붙고 싶다는 내용을 담은 격서를 장안으로 보냈다.
- ④ 성운은 순경에게 적병의 옷을 입히고 진문 밖에 세워 군사가 좌우에서 웅위하게 하였다.
- ⑤ 순경은 성운이 중행달과 싸우다가 달아난 것을 알지 못하고 군사를 몰아 중행달의 뒤를 쫓았다.

3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자신이 상대의 편이라고 속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 ② [A]는 [B]와 달리 상대가 처한 무력한 상황을 언급하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 ③ [B]는 [A]와 달리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이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자신의 예지 능력을 근거로 들어 상대의 행동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위기에 처한 백성을 위해 상대가 수행할 임무를 일깨우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진성운을 비롯한 복수(複數)의 영웅이 등장하여 활약하는 내용을 담은 영웅 군담 소설이다. 영웅들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무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바람직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영웅이 전기(傳奇)적 능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현실적 차원에서 기지를 발휘하고 전략을 세우는 점이 이 작품의 흥미로운 요소로 꼽힌다.

- ① 중행달이 천자에게 항복을 종용한 것은 영웅들이 중행달을 적으로 규정한 이유로 볼 수 있군.
- ② 성운이 배에 불을 지르기 위해 배를 묶게 한 것은 전략을 세워 활약하는 영웅의 모습으로 볼 수 있군.
- ③ 성운이 천자의 가족이 탈출한 것처럼 중행달의 눈을 속인 것은 영웅이 전기적 능력을 발휘한 모습으로 볼 수 있군.
- ④ 순경과 학녹 등이 천가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함께 힘을 합친 것은 복수의 영웅이 활약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군.
- ⑤ 성운이 적군을 파하고 난 후 승전곡을 부르며 돌아온 것은 영웅들이 지향하는 세계 질서가 회복된 모습으로 볼 수 있군.

34. ㉠의 상황을 나타낸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퇴양난(進退兩難)
- ② 자가당착(自家撞着)
- ③ 이심전심(以心傳心)
- ④ 다다익선(多多益善)
- ⑤ 기사회생(起死回生)

[35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루 또 하루가 갔다. 인간 시계로 이 년, 개들 시력(時歷)으로 십 년이 흘렀다. 찬성과 예반은 어느새 서로 가장 의지하는 존재가 됐다. 비록 움직임이 굼뜨고 귀가 어두웠지만 예반은 여느 개처럼 공놀기와 산책을 좋아했다. 찬성이 보푸라기 인 테니스공을 멀리 던지면 예반은 찬성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반드시 공과 함께 다시 나타났다. 무언가 제자리에 도로 갖고 오는 건 예반이 잘하는 일 중 하나였다. 찬성은 때로 예반이 자기에게 물어다 주는 게 공이 아닌 다른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공인 동시에 공이 아닌 그 무언가가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예반이 요즘 좀 이상했다.

할머니는 밤 열 시 넘어 집에 들어왔다. 한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서였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

찬성이 봉지 안을 들여다봤다. 은박지 사이로 설탕 입힌 통감자가 보였다. ㉠ 찬성이 퇴근한 할머니 뒤를 졸졸 쫓았다.

—할머니, 예반이 좀 이상해.

—지금 안 먹을 거면 냉장고에 넣어 두든가.

할머니가 평소 휴대품을 넣고 다니는 손가방을 안방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할머니, 예반이 밥을 안 먹어.

—늑어서 그래, 늑어서.

—있지, 내가 공을 던져도 움직이지 않아. 걷다 자주 주저앉고.

—늑어서 그렇다니까.

할머니는 모든 게 성가신 듯 팔을 휘저었다. 그러곤 끄응 소리를 내며 바닥에 이부자리를 폈다.

—저거 봐, 저렇게 자기 다리를 자꾸 훑아. 하루 종일 저래. 아까는 내가 다리를 만졌더니 갑자기 나를 물려고 했어.

㉡ 할머니가 요 위에 누우려다 말고 상체를 들어 찬성을 봤다.

—아니, 진짜로 문 건 아니고 무는 시늉만 했어.

할머니가 눈을 감은 채 이마에 팔을 얹었다.

—할머니, 예반 데리고 병원 가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서 자. 사방에 불 켜 두지 말고.

할머니의 반팔 소매에 얽은 김칫국물이 묻어 있었다. 찬성이 할머니 옆에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주춤거렸다.

—할머니, 예반 병원 데려가야 할 것 같다고.

할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무슨 개를 병원에 데리고 가. 사람도 못 가는 걸. 그러니까 내가 개새끼 도로 갖다 놓으라 했어 안 했어? 할머니 화병 나기 전에 얼른 가서 자. 개장수한테 백구 팔아 버리기 전에. 얼른!

—백구 아니야!
 ㉢ 찬성이 전에 없이 큰소리를 냈다.
 —뭐?
 그러곤 이내 말끝을 흐리며 소심하게 답했다.
 —에반이야.

[중간 부분의 줄거리] 예반을 데리고 동물 병원에 간 찬성은 고통받는 예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안락사뿐이라는 생각을 한다. 찬성은 안락사 비용 십만 원을 모으기 위해 힘들게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나 찬성은 이전에 할머니가 얻어온 휴대 전화의 유심칩을 사는 데 모은 돈의 일부를 쓰게 되고, 휴대 전화에 집중하느라 점차 예반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다.

오랜 궁리 끝에 찬성이 지갑에서 동물 병원 명함을 꺼내 들었다. 상중(喪中)이라 주말까지 쉰다는 말이 생각났지만 찬성은 괜히 한번 병원 전화번호를 눌러 보았다.

‘어쩌면 문을 열었을지도 몰라. 누가 받으면 뭐라고 하지?’

휴대 전화 너머로 익숙한 연결음이 들렸다. 찬성은 잘못된 것도 없는데 가슴이 뛰었다. ㉣ 몇 차례 긴 연결음이 이어졌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은 없었다. 찬성은 동물 병원 쪽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이상한 안도를 느꼈다. 찬성이 지갑 안에 명함을 넣으며 남은 돈을 세어 보았다. 십만 삼천 원. 예반을 병원에 데려가기에 부족하지 않은 액수였다. 오늘날 지나면, 그러면 꼭..... 다짐하며 일어서는데 찬성 무릎 위의 휴대 전화가 아스팔트 보도 위로 툭 떨어졌다. 찬성이 창백해진 얼굴로 황급히 휴대 전화를 주워 들었다. 그러곤 실금 간 왼쪽 모서리부터 확인했다. 찬성이 거미줄 모양 실금에 손가락을 대고 천천히 문질렀다. 아주 고운 유리 가루 입자가 손끝에 묻어났다. 찬성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 집으로 가는 길, 찬성은 한 손을 길게 뻗어 휴대 전화를 좌우로 틀며 햇빛에 비춰 봤다. 검은 액정 표면에 닿은 빛이 물에 뜬 기름처럼 매끈하게 일렁였다. 더불어 찬성의 가슴에도 작은 만족감이 일었다. 액정에 보호 필름을 붙이니 웬지 기계도 새것처럼 보이고, 모서리 쪽 상처도 눈에 덜 띄는 것 같았다. 스스로에게 조금 실망스러운 기분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변명했다. 찬성은 ‘구경이나 해 볼 마음’으로 휴게소 전자용품 매장에 들었다 액세서리 용품 진열대 앞에 한참 머물렀다. 그러곤 티끌 하나 없이 투명한 보호 필름을 만지며 자기도 모르게 “사흘.....”하고 중얼댔다. 그러니까 사흘 정도는..... 예반이 기다려 주지 않을까 하고. 지금껏 잘 견뎌 준 것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사흘만 참아 주면 안 될까. 당장 가진 돈과 앞으로 모을 돈을 셈하는 사이 찬성은 어느새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갑 안의 돈이 어느새 구만 오천 원으로 줄어 있었다.

— 김애란, 「노찬성과 예반」 —

35. 밑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 ② 두 사건을 병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시대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 전개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3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할머니를 자꾸 따라다니는 모습으로, 할머니에게 할 이야기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찬성이 물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려는 모습으로, 찬성을 염려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평소와 다른 찬성의 모습으로, 에반이 찬성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동물 병원에 전화를 건 모습으로, 동물 병원이 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휴대 전화를 살피는 모습으로, 상처 난 부분이 잘 가려졌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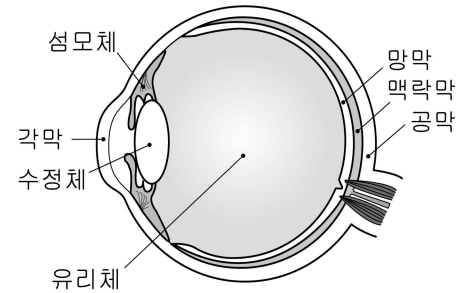
이 작품은 초등학생 찬성이 유기견을 키우며 겪는 일들을 보여 준다. 에반에게 친밀감과 책임감을 느끼던 찬성은 갖고 싶었던 물건이 생긴 후,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점차 소홀해진다. 자신의 행동에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곧 이를 합리화하는 찬성을 통해 '책임'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한다.

- ① 에반과 공놀이를 하는 찬성의 모습은 찬성과 에반이 친밀감을 느끼는 것을 드러내는군.
- ② 아픈 에반을 병원에 데려가고자 하는 모습은 찬성이 에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 ③ 땅에 떨어진 휴대 전화를 보며 찬성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은 그것을 갖고 싶어 한 자신에게 실망감을 느꼈음을 드러내는군.
- ④ 에반을 위해 모은 돈으로 휴대 전화의 보호 필름을 사는 것은 찬성이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점차 소홀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 ⑤ 액세서리 용품 진열대 앞에서 사흘 정도는 에반이 기다려 주리라 생각하는 것은 찬성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38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각기관인 눈은 시각을 감지하는 데에 관여하는 안구,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나 안구를 보호하는 눈꺼풀과 같은 부속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안구는 두개골의 오목한 부위인 안와에 들어있는 공 모양의 구조물이다.

<그림>의 안구를 보면, 안구벽은 세 층으로 되어 있다. 바깥층은 공막인데, 검은자위 부분에서 투명하게 변형되어 ㉠각막을 이룬다. 각막은 빛을 통과시켜 망막에 상을 맺게 해준다. 중간층은 ㉡맥락막, 섬모체 등으로 구성된다. 맥



<그림>

락막에는 안구의 각 부분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 중 다수가 밀집해 있어 빛의 통과를 막아, 빛이 공막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하여 상이 잘 맺히도록 한다. 섬모체는 수정체와 가느다란 실로 연결되어 있어, 수정체가 물체의 원근에 따라 초점을 조절하는 것을 돕는다. 안쪽층은 빛을 감지하는 ㉢망막이다. 안구벽 안쪽에는 유리체가 넓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고, 유리체의 앞쪽에는 수정체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안구는 단단하지 않다. 단단하지 않은 물체가 기압에 저항해 원래의 모양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내부 기압이 외부 기압보다 낮으면 물체는 찌그러지며, 반대의 경우에는 부풀어 오를 수 있다. 빛을 수용하고 상을 맺게 하는 눈의 특성상, 약간의 모양 변화로도 빛의 방향이 ㉦틀어져 초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안구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유리체이다. 안구 내부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는 투명한 젤 형태의 물질이다. 유리체는 안구 내압을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맥락막에 대하여 망막을 지지해 주고, 안구벽의 붕괴를 방지함으로써 안구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눈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기에, 이것만으로는 안구 전체뿐 아니라 안구를 구성하는 각 부분을 정확한 형태로 유지하기 어렵다.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각막과 수정체 사이의 '안방'이라는 공간이다. 만약 이 공간이 비어 있다면 외부에서 누르는 기압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리체가 밀어내는 압력 때문에 각막과 수정체는 서로 달라붙거나 찌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수정체가 원활하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눈은 수정체와 각막 사이의 공간에 채워진 ㉧방수로 적절한 내부 압력을 유지한다.

'방에 든 물'을 뜻하는 방수(房水)는 투명한 약알칼리성 액체로, 눈물과는 구별된다. 방수는 안방에 들어차 각막의 형태를 유지하고, 혈관 분포가 없어 투명한 구조인 각막이나 수정체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것은 방수가 순환되는 물이라는 전제를 포함한다. 섬모체에서 만들어진 방수는 안방을 채우고 섬유주라는 조직을 통해 배출된 후 슬렘관으로 흡수되어 심장으로 들어가 혈액에 합류된다.

눈의 구조와 시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방수는 적정량이 제대로 흘러야 한다. 제 역할을 다한 방수는 흘러나가야 하는데, 섬유주의 구조 변화나 슬렘관에 이상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방수의 배출 여부와 관계없이 섬모체는 계속 방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 과도한 방수로 안압이 높아진다. 그 결과 안구의 모든 조직에 압력이 가해져 문제가 생기는데, 그중 특히 약한 조직인 시신경이 먼저 심하게 손상을 받게 된다.

3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각막은 공막과 달리 투명하다.
- ② 수정체는 빛이 통과할 수 있는 구조이다.
- ③ 유리체는 맥락막에 대하여 망막을 지지해 준다.
- ④ 섬모체는 수정체와 연결되어 물체의 원근을 감지한다.
- ⑤ 방수는 슬렘관을 거쳐 심장으로 들어가 혈액에 합쳐진다.

39.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안방이 비어 있다면, 외부에서 누르는 기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리체가 (㉠)는 압력 때문에 안방이 찌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방수가 이 공간을 채우는데, 만약 방수의 공급량에 비해 배출량이 (㉡)지게 되면 안압이 (㉢)하여 시신경이 손상된다.

- | | | | |
|---|-----|----|----|
| | ㉠ | ㉡ | ㉢ |
| ① | 밀어내 | 적어 | 상승 |
| ② | 밀어내 | 적어 | 하강 |
| ③ | 밀어내 | 많아 | 상승 |
| ④ | 당기 | 많아 | 하강 |
| ⑤ | 당기 | 많아 | 상승 |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다수 밀집되어 있다.
- ② ㉡은 수정체가 초점을 조절하는 것을 돕는다.
- ③ ㉠과 ㉣은 안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부속 기관이다.
- ④ ㉣은 빛의 분산을 막아 ㉡에서 상을 맺는 것을 돕는다.
- ⑤ ㉢을 통과한 빛이 ㉠에서 감지된다.

41. 윗글의 [방수]와 <보기>의 [눈물]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눈물]은 윗눈꺼풀 안쪽의 누선에서 분비된다. 눈을 깜박일 때마다 눈물은 안구 표면 전체를 적시는데, 특히 각막을 고르게 덮어준다. 이때 눈물은 각막에 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안구의 운동을 원활하게 한다. 또한 먼지나 병균을 씻어내어 안구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 역할을 다한 눈물은 안쪽 눈구석에 있는 누점을 통해 누관을 타고 콧속으로 배출된다. 정상적인 눈물은 분비와 배출의 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① 방수는 섬유주를 통해, 눈물은 누점을 통해 배출된다.
- ② 방수는 각막에 영양분을, 눈물은 각막에 습기를 공급한다.
- ③ 방수는 안구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 눈물은 안구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 ④ 방수와 눈물은 모두 적절한 양이 유지되어야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
- ⑤ 방수와 눈물은 모두 안구 표면을 적셔 안구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42.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날아가던 공이 오른쪽으로 틀어졌다.
- ② 늦잠을 자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졌다.
- ③ 햇볕에 오래 두었더니 목재가 틀어졌다.
- ④ 마음이 틀어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⑤ 초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친구와 틀어졌다.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 [A]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B]

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오
내악수(握手)를받을줄모르는-악수(握手)를모르는왼손잡이오 [C]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는
거울이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했
겠소 [D]

나는지금(至今)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
있소
잘은모르지만의로된사업(事業)에골몰할게요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反對)요마는
또때뒹았소 [E]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診察)할수없으니떡섭섭하오
- 이상, 「거울」 -

(나)

누가 내 속에 가시나무를 심어놓았다
그 위를 말벌이 날아다닌다
몸 어딘가, 쏘인 듯 아프다
생(生)이 벌겍게 부어오른다 잉잉거린다
이건 지독한 노역(勞役)*이다
나는 놀라서 멈칫거린다
지상에서 생긴 일을 나는 많이 몰랐다
모르다니! 이젠 가시밭길이 끔찍해졌다
이 길, 지나가면 다시는 안 돌아오리라
돌아가지 않으리라
가시나무에 기대 다짐하는 나여
이게 오늘 나의 희망이니
가시나무는 얼마나 많은 가시를
감추고 있어서 가시나무인가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나를
감추고 있어서 나인가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고
나에게는 가시나무가 있다
- 천양희, 「가시나무」 -

* 노역: 괴롭고 힘든 노동.

4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명사형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 ② (나)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수미상관 방식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나)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44. (가)의 [A] ~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거울 밖과 구분되는 ‘거울속’ 세상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
- ② [B]에서 화자는 ‘거울속’의 ‘귀’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표출하고 있다.
- ③ [C]에서 화자는 ‘거울속의나’와 소통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 ④ [D]에서 화자는 ‘거울속의나’를 ‘만져보지를못하’게 하지만 ‘만나보’게 해준 거울의 이중적 속성을 파악하고 있다.
- ⑤ [E]에서 화자는 ‘거울속의나’와 ‘나’가 반대이면서도 닮았다는 모순적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고통을 상징하는 ‘가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화자의 내면 풍경과 삶의 과정을 성찰하고 있다. 삶의 고난이 화자를 고통스럽게 만들기에 화자는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가시나무에 기대’어 하는 모습에서 화자가 결국 고통을 인정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화자는 고통이 존재의 본질임을 깨닫고 고통과 함께하는 삶을 수용하게 된다.

- ① 고통받는 화자의 내면 풍경을 ‘가시나무’와 ‘말벌’을 이용하여 드러냈다고 할 수 있군.
- ② 화자의 순탄하지 않았던 삶의 과정을 ‘가시밭길’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군.
- ③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행위를 ‘지독한 노역’에서 확인 할 수 있군.
- ④ ‘가시나무’와 ‘많은 가시’, ‘나’와 ‘많은 나’의 대응 관계를 통해 존재의 본질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군.
- ⑤ 고통과 함께하는 삶을 수용하는 화자의 인식을 ‘나에게는 가시나무가 있다’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